

광주시 'AI 집적단지·AI 영재고' 국비 추가 확보

내년 국비 3조2446억원 반영 확정
인공지능·미래차 등 현안 사업 탄력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등
강 시장 "세수부족 속 반영 성과"

광주시의 2024년도 국비 예산이 총 3조244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3조3081억원보다 635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 3조1426억원보다는 1020억원 증가한 액수다.

광주시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시 예산으로 3조244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및 달빛철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현안 사업인 환경·교통 분야의 국비가 확보돼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사업들에 속

가 불을 것으로 전망이다.

광주시가 국비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뒀던 인공지능(AI) 분야가 눈에 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374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국회에서 53억9000만원이 추가 확보돼 인공지능 중심 생태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31억8000만원이 확보돼 인공지능(AI) 핵심 인재의 조기 양성과 인재양성 사다리가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EV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시장 선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미래차 선도도시 광주'에 걸맞게 관련 미래차 분야 예산 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광주시는 미래차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예산 110억원 확보에 이어 국회에서 추가로 국비 19억8000만원을 확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대비 축소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의 일부 사업도 되살아났다. 특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 5억4000만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뗄 수 있게 됐다.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비엔날레 시각 진흥 육성 사업에 국비 2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Y프로젝트 앵커사업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5억원)도 최

중 확정됐다.

이밖에 광주선(광주송정역~광주역)을 복선·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이 반영됐고,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토지보상비 42억7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강기정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역대급 세수 부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 현안사업들이 국비에 추가 반영돼 인공지능 중심도시, 미래차 선도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구축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며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대우위니아발 지역 협력업체 위기
경영안정자금 등 범부처 지원 요청

광주시는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인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2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과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류 검토와 조사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 범부처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가전산업이 광주시의 주된 산업인지, 현재 지역 가전산업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 상황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5개 지원을 피해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 가전산업 분야 선도기업인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 피해액은 1146억원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33개사, 829억원에 달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경제·산업계와 연대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호소문 발표를 추진했다. 또 시민과 함께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위기 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협력업체의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월말부터는 협력업체 지원



내결에 서구, 사람책 도서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마을활동가 등이 21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마을활동가 31명의 기록을 담은 '내결에 서구, 사람책 도서관_우리가 걸어 가면, 길이 됩니다' 발간 전시 및 기념식에서 그동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

비비 10억원을 활용한 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12월초부터

는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